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1015억… 3년 연속 증가

(2024년)

중구 제외한 구·군 체납액 급증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 등 영향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

대구시와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대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3년 903억 원, 2024년 1015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중구를 제외한 각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했다.

특히 달서구는 2022년 143억 원에서 지난해 207억 원으로 체납액이 급

증했다. 같은 기간 수성구도 118억 원에서 177억 원으로, 달성군도 140억 원에서 187억 원으로 체납 규모가 꺾충 뛰었다.

이외의 구·군도 지난해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동구 135억 원, 북구 117억 원, 서구 64억 원, 중구 52억 원, 남구 48억 원, 군위군 13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광역시세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에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부동산 개발·임대업인의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난 것

으로 풀이된다.

고액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2022년 940명에서 2023년 1229명, 2024년 1406명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납금지,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통해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 체납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납세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가 안 돼서 대구시나 구·군의 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징수를 처분하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 징수가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체납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체납자들의 경제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골굴사 전경

경주시

‘경북 웰니스 관광지’ 최다 선정

경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경북 웰니스 관광지’ 공모에서 관내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북도의 웰니스 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체류형 힐링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골굴사(힐링·명상 분야) ▲코오롱호텔(스테이 분야) ▲토함산자연휴양림(자연치유 분야) 등 3곳이 이름을 올리며 도내 최다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사상구 임궁유수지에서 ‘임궁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부산시, ‘임궁대교 건설사업’ 본궤도

기공식 개최… 2030년 완공 목표
맥도교 등 2개 교량, 2개 교차로 포함

부산시는 지난 30일 사상구 임궁유수지에서 임궁대교 건설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도읍·김대식 국회의원, 이종환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모여 착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순으로 40분간 진행됐다.

임궁대교 건설 사업은 예코델타시티가 있는 강서구 대저2동에서 사상구 임궁동 승학터널까지 2.91km 구간 에 왕복 6~8차로 도로를 조성하는 사

업이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임궁대교와 맥도교 등 2개 교량, 2개 교차로 건설이 포함된다.

부산시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며 공사 기간 중에도 유관기관, 전문가, 환경단체와 꾸준히 협의해 자연과 공존하는 교량 건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임궁대교는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예코델타시티 등 신성장 거점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서부산권은 예코델타시티,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중된 핵심축으로, 임궁대교가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김해시, 창업 지원 기관협의체 출범

기관 간 협력 통해 정책효과 극대화

김해시가 지역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15개 창업 지원 유관 기관과 손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창업 지원 기관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연구원, 인제대학교 창업지원단, 김해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한국재료연구원, 경남벤처투자, 시리즈벤처스,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엔젤투자허브, 김해스타트업포럼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지

역 내 유망 기업과 특화 기업 발굴 및 육성, 각 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행사 정보 공유, 창업 지원 공동 사업 및 협력사항 발굴, 프로그램 연계 방안 모색, 창업 정책 자문, 기타 협력 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김해시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환 경제국장은 “창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현장의 연결고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과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해 관내 창업 기업들에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임종식 “경북교육 ‘확장·안착·전환’ 주력”

〈경북교육감〉

경북교육청, 취임 3주년 기자회견

경북교육청은 지난 30일 본청 응비관에서 민선 5기 임종식 교육감(사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도약기를 맞이한 민선 5기 임 교육감의 임기 중반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확장·안착·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경북교육은 위기 속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대표 사례로 지난봄 경북을 뒀던 대형 산불 당시 대응과 회복 과정을 언급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직접 피해 현장



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 긴급체계를 가동했다. 굿네이버스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약 23억 원 규모의 생계비와 물품을 긴급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준 교육가족과 도민, 민간단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 ‘확장·안착·전환’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년간 따뜻한 경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며 “앞으로 경북교육의 확장과 만족을 더하는 안착, 미래를 여는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세계 교육의 새로운 서사를 경북에서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포항시, ‘포송마차 축제’ 10만여명 발길

市, 상설 야시장 전환 등 확대 검토

포항시가 선보인 야간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포송마차’가 2주간 10만여명의 발길을 끌었으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상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안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포송마차’ 축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야시장 형태로 열렸다.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을 따라 펼쳐진 30여 개의 포장마차,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포항 특

산물 먹거리, 아름다운 해변 야경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포항형 야간 축제’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 기간 동안 송도해수욕장 일대 상가와 포장마차 부스의 매출은 평소 대비 평균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일회성 축제가 아닌 계절별 상설 야시장 또는 도심 상권 분산형 야간축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해수욕장 8곳 환경 기준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 해수욕장 8곳에 대한 수질 및 백사장 모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에서는 수인성 질병의 지표세균인 장구균과 대장균의 검출 정도를 확인했다. 백사장 모래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출 정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수질과 백사장 모래 모두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망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비수도권 유망 스타트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7일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발대식을 열고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납부발전, 부산창경 관계자와 선정 스타트업 임직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오는 8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현지 산업계 관계자 및 IR 발표, 네트워킹,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현장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고 ‘InnoEX 2025’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릉군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 승차

울릉군은 1일부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울릉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울릉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지역내 활력 회복과 공동체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경북)=김진곤 기자